

## 맞춤교육의 정석이었던 다산 선생

### '다산의 재발견' 정민 지음



오랜동안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년)을 연구해온 정민(50) 한양대 교수가 최근 5년간의 연구결과를 총망라해 '다산의 재발견'을 펴냈다.



다산 영정(왼쪽)과 다산도(다산이 초의를 시켜 그리게 한 것으로 초당의 모습을 가능케한다. 개인 소장)



이번 책은 지난 2006년 간행한 '다산선생 지식경영법'(김영사 펴냄) 이후 다산에 대한 두 번째 단행본이지만 성격은 좀 다르다.

전작이 '여유당전서' 같은 기존에 알려진 글을 위주로 다산을 탐구했다면, 이번 책은 철저히 그 자신이 다산에 미치다시피 해서 발로 뛰며 찾아낸 다산 관련 자료 탐사기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의 친필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어디든 찾아갔다. 새 자료를 수소문해서 만나고, 정리해서 번역하고, 논문으로 썼다. 손에 못 넣으면 안절부절 못이 달았다. 보기 민망하고도 나루었다. 그런 소리를 들은 남도 친필 편지 한 장이 나왔다는 소식에 하던 일 비켜두고 카메라를 들고 달려갔다. 그렇게 모은 자료로 쓴 논문이 20편을 켜 넘겼다."

이런 과정을 책 머리에 부친 '다산의 자취를 찾아 해멘 여정'이라는 글에 잘 녹아 있다.

본문은 모두 20여 편에 이르는 순수 논문의 묶음이지만 여타 한문학 논문과는 달리 다산의 체계가 물론 풍겨나 있는 이야기이다 자료 발굴 비화를 쪼곤쪼곤 풀어써 술술 넘어간다.

저자도 '다산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학술 그룹을 조직하고 운영했는가'라는 부제에서 밝히고 있다. 이번 책의 핵심은 다산의 '교학 매뉴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다산이 제자 교육과 관련 무엇보다도 '문심해두(文心慧寶)'를 중요시했다고 한다.

공부는 해두 즉 '슬기구멍'이 뻥 터져야 된다고 믿었다는 것. 지식보다 지혜를, 정보보다 식견을 넓혀주는 교육이 왜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산의 교육은 놀라운 정도로 체계적이었다고 한다. 제자들의 개성에 따라 맞춤교육을 했다. 문학과 이학으로 나눠 전공을 살려줬다. 일정 수준에 오르면 매일 과제를 쥐 기초를 다지게 만들었다. 문답을 통한 강좌, 즉 토론회 교실로 논리적 사고력을 높여주었다. 각자 역량에 따른 역할 분담 방식도 도입, 자신의 성과와 제자들의 성장을 도왔다.

이렇게 해서 훗날 '다산학단'(茶山學團)으로 불리는 드립티 제자들을 양성하고 5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책은 또 성인(聖人)이자 최고의 지식인 다산을 색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어떻게 보면 사사로울 수 있는 친필 편지들을 세세하게 분석해 '민낯의 다산'을 볼 수 있다.

제자를 의면하고 제자가 배신하는 갈등(서설, 다산여황상사간첩 등), 유배지에서 낡은 말 흥인 모녀에 얽힌 사연(매조도 등), 편지 내용과 함께 적혀 있는 편지를 쓰는 사연 등을 번역, 해설하면서 다산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해준다. 학자, 교육자, 불교 연구자, 농사꾼 등 다양한 면모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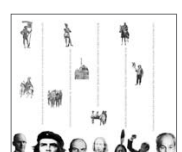
저자는 이번 책에서 다산학 관련 자료를 거의 예외 없이 원색 도판으로 소개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다산의 자료를 한껏 공유하면서 생생하고 생산적인 질문으로 질문의 경로가 바뀌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다.

책은 다산과 실학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자료이며, 관심이 덜한 일반독자들에게는 넓고 깊은 다산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휴머니스트·4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세계 곳곳서 일어난 반란과 혁명의 역사

### '반란의 세계사'



킨 이오니아 반란, 중세 농민들의 봉기, 근대의 시민 혁명과 한국의 동학 농민 혁명, 최근의 아랍 민주화 혁명까지 24가지의 주요 혁명을 다루고 있다.

인류가 도시와 국가를 이루고 산 이래로 혁명과 반란은 지구상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다. 압제와 폭정에 맞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운 사람들,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투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그 어떤 순간들보다 극적이어서 언제나 우리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한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활동하며 인문사회과학 서점 '그날이 오면' 홈페이지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오준호씨가 쓴 '반란의 세계사-이오니아 반란에서 이집트 혁명까지'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반란과 혁명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다. 기원전 499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촉발시

키는 기본 역사책들의 유럽 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어 동양과 서양의 혁명과 반란을 균형 있게 다룰 뿐만 아니라,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신대륙과 아프리카의 주요 항쟁과 봉기들도 조명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긴박감이 넘치는 이야기 식 전개, 정확한 내용과 균형감이 해설도 돋보인다. 또한 110여 개의 그림과 사진 자료, 상세한 지도를 덧붙여 역사적 상황과 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미지북스·1만6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미술의 언어로 영화를 읽자

### '영화 속 미술관'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을 역임한 정준모씨가 이처럼 미술의 언어로 영화를 읽은 예술·교양서 '영화 속 미술관-미술, 영화를 읽다'를 출간했다.

영화 속에는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양한 미술작품이 등장한다. 그리고 실재로 그 작품을 통해 영화를 이끌어가는 계기로 삼거나 영화의 반전을 암시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노팅힐'에서 사갈의 작품 '결혼'이 암시하는 행복한 결말과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 등장하는, 입을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는 앙소르의 작 '슬퍼하는 사람'이 상징하는 주인공의 비극, 프랑스 영화 '아멜리에'의 영동한 주인공이 르누아르의 '벧 놀이하는 사람들'의 점심식사에서 혼자 짝 자리를 차지하는 소녀와 겹쳐 연상되는 것도 이와 같은 예이다.

"이제 그림이나 영화를 위한 지식은 '지혜'로 이끌어 내야 할 시기"라고 말하는 저자는 '도취' '은유' '갈등' '사랑' '고뇌'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40여 편의 영화를 나름의 방식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진정으로 성숙한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생각보다 작거나 감독의 뜻을 과도하게 헤아리려는 사람들에겐 자신의 힘으로 감상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마로니에북스·1만3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자연과 아이들... 성미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

### '성미산 마을 사람들'



위해 성미산마을로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성미산의 아이들의 일상, 성미산 마을의 삶, 성미산 마을의 아름다운 힘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재미있게 들려준다.

1994년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자락에 문을 연 공동육아 공간 '성미산마을 어린이집'은 경쟁 사회에 쪼든 아이들로 키우지 않으려는 많은 학부모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이후 성미산 마을은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 확장됐고, 언론 등에 소개되고 외국인들의 방문도 잦아지면서 건강한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다.

성미산 마을에서 '오름'으로 불리는 윤태근씨가 펴낸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성미산 마을을 일구며 살아 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이야기를 가슴 따뜻하게 그려낸 책이다.

**책은 7살 산이, 아빠 오름, 엄마 초록비가 공동육아를**

특히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 세우신 생협, 온 가족이 이용하는 식당 '성미산 밥상', 다양한 작품들이 공연되는 문화공간 '성미산 극장', 관심과 취미생활을 함께 나누는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다른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된다.

책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지만, 성미산 마을 또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에 불거지는 문제점과 과제들을 차근 차근 짚어나갔다.

**<북도마드·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상식은 편견의 또 다른 이름

### '상식의 역사'



미친 영향을 더 듣는다. 저자는 "상식은 포퓰리즘의 인식적 토대이며 포퓰리즘을 정당화하는 바탕이다"

소피아 로젠펠드 지음  
사회적으로 포퓰리즘(populism·대중주의 혹은 인기영합주의)의 만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뿌리를 역사적으로 파헤친 소피아 로젠펠드 버지니아대 교수의 책 '상식의 역사-왜 상식은 포퓰리즘을 낳았는가'가 번역, 출간됐다.

책은 영국 명예혁명을 전후할 때부터 프랑스의 계몽운동을 거쳐 현재의 포퓰리즘까지 350년에 걸쳐 상식이 정치적, 문화적 아이디어로 세계사에

## 절망의 섬에서 만난 유배객들의 삶

### '절해고도에...'



편안하고 대접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먹는 것을 구걸하며 구차하게 살아가는 이도 있었다. 또 베풀어 살 때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확신적 성과를 거둔 이가 있는가하면 외로운 섬에서 예슬흔을 볼사라도 있었다.

이종묵, 안대희 교수와 사진작가 이한구씨가 제주도, 흑산도 등 14개 유배의 섬을 찾아 유배객들의 삶의 궤적을 찾아 엮은 '절해고도에 위대한 안치하라'를 출간했다. '위대한안치(闔羅安置)'란 유배된 집에 지붕만큼 높은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고 매일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만 받아먹게 하는 최악의 형벌이었다.

섬에 머문 기간이 달랐듯 유배객들의 삶도 제각각이었다. 유배지에서도

절해고도에 유배당한 처지는 모두 같았으나,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은 모두 달랐다. 보는 이로 하여금 삶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북스코프·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신간

### ▲만들어진 승리자들=독일 '디 벨트'의 편집국장을 역임한 볼프 슈나이더가 나폴레옹을 비롯해 세계사를 기억하고 존경하는 '승리자들'의 이면을 파헤친다.



《문학동네·1만3000원》

### ▲신의 궤도 1, 2=본격분화와 SF를 넘나드는 작업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은 작가 배명훈씨(31)의 첫 장편소설. 2070년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우주 개척사, 행성 전쟁사, 서로 다른 의지로 부딪히는 인간 군상까지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스펙터클하게 전개된다.



《문학동네·1만2000원》

### ▲조복성 곤충기=우리나라 최초의 곤충기를 63년 만에 재출간한 것이다. 원작은 고(故) 조복성 박사가 1948년 청소년을 위해 제작했다.



《뜨인돌·1만6000원》

### ▲세계는 한 권의 책-나는 그 책을 끝까지 읽고 싶다=지난 1993년 KT 사장에서 은퇴 후 배낭여행으로 세계여행에 나선 이후 17년 만에 192개의 독립국을 여행해 한국 내 기념스 기록을 갖고 있는 이혜숙씨가 아내 김성심과 함께 저술한 여행기. 저자들이 전 세계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문화와 자연, 그리고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들 사진과 함께 담았다.



《두배·1만6500원》

### ▲달팽이 안탄테=회소병에 걸려 전신이 마비된 저자가 20년의 병마를 달팽이 한 마리와 함께 이겨낸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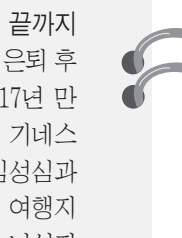
《두배·1만3000원》

###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제목 그대로 이슬람의 시각에서 1500년의 세계사를 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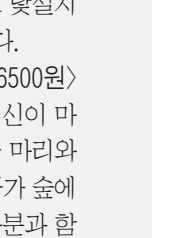
《뿌리와이파리·2만8000원》

### ▲또박또박 말해요=을 바른 대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책. 말할 때 우물쭈물하는 아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아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들을 등장시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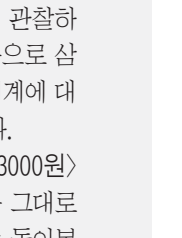
《살림어린이·1만원》

### ▲강이재동 권정성 동화의 꽃을 피우다=가난과 병마로 고통받으면서도 아이의 마음을 간직하고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다 떠난 동화작가 권정성의 삶을 동화로 엮었다.



《청어람미디어·9500원》

### ▲방귀 똥고 박사 아니야! =오빠와 동생, 아이간에 자주 일어나는 일을 재미있게 그렸다.



《창비·9000원》

### ▲바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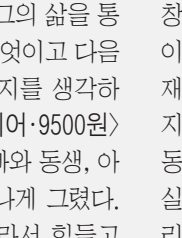
《파란자전거·8900원》

### ▲리리 이야기 시리즈=속 깊은 꼬마 '리리'를 중심으로 리리의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과 세상을 배우는 그림동화 시리즈.



《창비·9000원》

### ▲안녕, 그림자



《창비·9000원》

## 어린이 책꽂이

바사세요! 라는 자꾸 놀린다. 똥난 지민이는 집을 나가는데..... **<파란자전거·8900원>**  
▲리리 이야기 시리즈=속 깊은 꼬마 '리리'를 중심으로 리리의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과 세상을 배우는 그림동화 시리즈. 자기를 슬모없는 존재라고 느낀 리리가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바위집'과 어른들의 말에 상처받은 뒤 가면을 쓴 채 살아가려는 리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뱀지 궁전' 등 2권이 먼저 나왔다. **<시공주니어·각 권 9000원>**  
▲안녕, 그림자='소나기 밥 공주'로 제13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대상을 받은 이은정씨의 장편동화. 아동 성폭력 문제를 소재로 성폭력 피해 아동이 아픔을 이겨내기까지 과정을 섬세하게 그렸다. 부모의 경제적 활동 등으로 인해 장시간 방치되는 아이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심리를 따라가며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진다. **<창비·9000원>**